

<세션5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

정종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ESG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재무성과 못지않게 비재무적 지표를 중시하며, 특히 'S(Social)' 영역의 핵심 가치로 '안전'을 꼽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약 23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업무상 사고 사망자 827명), 산업재해 발생자는 약 14만 명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높은 사망률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도 안전을 ESG 평가의 핵심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블랙록(BlackRock)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투자 기업 선정 시 안전 보건 시스템과 사고 이력, 리스크 관리체계를 주요 심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실제로 2020년 미국의 한 글로벌 화학기업은 대형 폭발 사고 이후 주가가 35% 폭락하고, ESG 등급이 두 단계 하락하였고 반면, 독일 가전기업은 10년간 중대재해를 60% 이상 줄여 ESG 평가 결과 S부문 최고등급을 받았다. 국내 모 제빵회사의 경우 '2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와 노동자 안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체계적인 안전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생산성이 20~25% 높고, 직원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낮다. 안전한 일터는 근로자의 신뢰와 몰입도를 높이고, 이는 혁신 역량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진다.

CEO가 안전을 기업 전략의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 안전을 내재화하며, 현장에서 직접 안전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조직의 안전 문화는 정착될 것이다.

ESG의 S는 '사람(Social)'이며,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안전'이다.